



천주교 롱 아일랜드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Apostolate at Holy Name of Jesus Church

| | | | |
|---|--|--|--|
| 2021년 1월 1일 |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제 2031호 |
| 성당 안내 | | 미사 안내 | 성사 및 교리 |
| <p>* 주임 신부: 이재원(다미안) Rev. Jae Won Lee (Damian) 516-728-2770</p> <p>* 평협 회장: 이명훈(벨라도) 917-349-3473</p> <p>* 사무실 516-921-3333</p> | | <p>주일미사 : 토 오후 8시 (저녁주일미사) 일 교중미사 낮 12시</p> <p>평일미사 : 수 오전 11시 목 오후 8시 30분</p> <p>성모신심미사 : 매달 첫째 토 오전 10시 (미사 후 성시간)</p> | <p>예비자교리:</p> <p>고해 성사 : 미사 20분 전</p> <p>유아 세례 : 희망일(사전 접수)</p> <p>병자 성사 : 위급하기 전 연락요망</p> <p>혼인 성사 : 6 개월전 상담</p> |



| | | | |
|--------------|--|---------|--------------------|
| 입당송 |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 | |
| 제 1 독서 | 민수기 | 6,22-27 | 제 2 독서 갈라티아서 4,4-7 |
| 화답송 |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 |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알렐루야. | | |
| 복 음 | 루카 | 2,16-21 | |
| 영성체송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또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 | |
| 전례 봉사자 (1/1) | 미사해설 | 1, 2 독서 | 기도 |
| 12:00 | 김 성 섭 | 이 창 준 | 해 설 자 |

690 Woodbury Road Woodbury, NY 11797

Office Tel: 516-921-3333 Fax: 516-921-3334 E-Mail: likcc01@gmail.com Homepage: www.likcc.org

오늘의 묵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의 시작과 함께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입니다. ‘복’(福)이란 한자어는, 하느님[示]께서 각자[一]에게 필요한[口] 밭[田]을 주셨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상통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재물과 건강, 부귀와 영화겠지만, 하느님 백성인 우리에게 참된 복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자들입니다. 인간으로서 감히 얻을 수 없는 하느님의 몫을 상속받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새해 첫 날부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의 인생 속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성모님께서서 목자들이 전해 준 믿기지 않을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합니다. 화려하지만 사라져 버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놓으신 하느님의 영의 선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서는 어떤 처지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복을 누린 분이셨습니다.

복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서로 빌어 주는 것입니다. 새해 첫 날을 어제와 별 다르지 않은 날로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처럼, 행복과 희망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하는 능력입니다. 새해에 내가 결심하고 하느님께 청한 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 성모님처럼 곰곰이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주님!

저희 본당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가정을 보호하소서.